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사용 뿌리 뽑는다

정읍시가 정읍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는 오는 30일까지를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사전에 추출한 후, 해당 가맹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유통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일제단속을 통해 2개 업체의 위반 행위를 적발,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위반 규모가 중대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매트리스 케어'
사업 4개 지역에서 시행

정읍시 희망복지지원단(단장 백지원이) 저소득 거동불편 가구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트리스 케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을 기반으로 정읍시를 포함한 4개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시는 지난 20일 사회적기업 (유)기분 좋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침실 위생 개선을 위한 전문 청소·소독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매트리스를 청소하고 소독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미세먼지, 집먼지진드기 등으로 인한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건강 복지 서비스다.

/정읍=김대환 기자

방장산, 복합문화관광지로 키운다

고창군, 산악·레저기업 방장산에 3000억 투자계획... 숙박·휴양 등 조성

고창군 방장산 일원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한 친환경 산악관광 중심지로 뜨고 있다.

고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27일 방장산 일원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으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자도와 고창군은 민자유치와 방장산 산악관광지 조성 지원 등에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악관광진흥지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곳보다 높은 곳이나 경사진 곳에도 관광호텔, 리조트, 산악레포츠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국가나 전

북자치도가 설치 지원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에는 JNICT(주), (주)OTO 2개의 기업이 방장산에 친환경 산악관광을 위한 3000억원 상당의 투자계획을 발표 했다. 이들 업체는 향후 방장산 일대에 숙박, 휴양, 운동, 레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방장산은 지리산·무등산과 함께 호남 3대 명산으로 알려진 유서 깊은 산이다. 석정온천, 방장산 국립휴양림 등 인접 관광지와 함께 국내 최대 MTB 3개 코스, 6개 지정 등산로 조성 등 산림·관광지대로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고창군 해리면 (구)삼양면업사의 역

사·문화·관광거점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창군은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살려 영업사 전시관, 열전 박물관 등 영업사의 역사를 다룬 역사문화적 공간을 조성, 천연염 소금을 활용한 카페, 미디어아트 전시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30년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노을개봉 등으로 급변하는 전북 관광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에 방장산 산악관광 진흥지구 조성이 전북도의 새로운 산악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이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귀농귀촌 도시부문에서 13년 연속 수상하며, 귀농귀촌 1번지로써 명성을 이어갔다.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고창군, 13년 연속 귀농귀촌 도시부문 대상 수상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이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귀농귀촌 도시부문에서 13년 연속 수상하며, 귀농귀촌 1번지로써 명성을 이어갔다.

고창군은 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업의 특정한 기술과 맞춤형 정착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며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꿈의 도시로 자리매김 해왔다.

특히, 고창군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초기 영농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한 귀농인 영농정착금과 귀농 초기 충분한 소득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들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대출 이자 중 1%를 3년간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비 귀농귀촌인이 고창에서 먼저 살아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8년째 운영하고 있다. 체류형농

업창업지원센터는 매년 30세대를 모집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거주하며 텃밭과 공동체 실습하우스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영농기술교육과 현장실습뿐 아니라 고창 알아가기 프로그램을 통해 고창 살이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어 도시민의 호응이 높다.

군은 금년에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마을환경회, 귀농체험학교 등 3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농촌문화 이해교육, 지역민과 함께 하는 실용교육,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위하여 고창군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다"며 "앞으로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농촌,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고창을 만들기 위하여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관할권 결정 규탄

부안군 농업인 단체, 김제시로 결정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 규탄 결의문 낭독

부안군 농업인 단체 연합회 15개 단체 대표들은 지난 21일 농업인 회관에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규탄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김제시 귀속 결정을 즉각 철회 △실질적 행정·생활권과 역사적 회생을 고려하여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권을 부안군에 귀속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등 농업인 단체 연합회의 주요 요구사항이 담겼다.

특히 연합회는 "부안군은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해양 생태와 어업 기반 등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이번 결



정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부안군민의 회생과 공헌을 외면한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부안군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

했으며, 민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고,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 구역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농기센터, 디지털 농업혁신 이끈다... ASTIS 거점기관 선정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애즈티스)의 전국 5대 거점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 디지털 기반의 농업기술 보급과 스마트농업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정읍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기관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충남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전남 함평군농업기술센

터와 함께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포합됐다. 이 기관은 각 지역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역할을 맡는다.

ASTIS는 농촌진흥청이 구축한 온라인 농업기술 플랫폼으로, 농업인이 토양검정, 예비분석, 미생물공급, 농산물 안전성분석 등 과학영농시설을 이용할 때 회원가입을 통해 실시간 분석결과와 서비스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작물 생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생리장애 등

애로사항을 플랫폼에 올리면 농업기술센터가 이를 확인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제공한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거점기관으로서 농촌진흥청과의 협력 아래, 정밀 농업정보 수집·분석·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 대응 체계를 한층 정교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문제를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맞춤형 기술자원을 제공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 정례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보호 강화 등 논의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는 22일 2025년 단체장 정례회를 개최했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3개 회원 지자체 단체장,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협의회 주요 사업계획 등 핵심 안건을 논의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올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RPZ) 내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질적 재정지원 확대, 그리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새로운 세원발굴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협의회는 2025년 주요 사업으로 △원전인근지역 지원을 위한 세원발굴 연구용역 △지자체 방사능방재대책 역량강화 워크숍 △대국민 홍보사업 △원전 인근지역 지원 및 방사능방재 대책 해외시찰 △원전 소재지와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